

신라의 ‘東京’과 그 의미

朱 甫 暉*

1. 문제의 제기
2. ‘東京’의 실재
3. ‘東京’ 의식의 기반과 배경
4. ‘東京’의 출현과 그 의미
5. 나가면서

[국문초록]

한국사에서 동경이란 지명은 경주를 가리키는 일명으로 된 적이 있으며 지금까지 그런 인식은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주를 동경으로 부르기 시작한 시점을 고려 초 成宗 때의 일이라 이기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인식은 여러 모로 再考의 여지가 높다. 왜냐하면 그보다 훨씬 앞서 신라 때부터 왕경을 동경이라고 부른 몇몇 사례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9세기 후반에 지어졌다는 處容歌란 鄉歌에 동경이란 지명이 보인다. 이를 고려시대의 것이 것처럼 추기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모든 향가를 그렇게 볼 가능성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특히 9세기 초 경남 山淸의 斷俗寺에 세워졌던 神行禪師碑에 신라 왕도를 동경으로 불렀던 사례가 보임은 신라 때부터 경주를 동경이라 불렀던 결정적 자료로 손꼽을 수 있다.

이처럼 신라 왕도를 동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고려 초가 아닌 신라 때부터라면 이는 여러 측면에서 새롭게 해석할 여지가 생겨난다.

* 경북대학교 사학과 교수, bdju@knu.ac.kr

언제 어떤 배경에서 동경이라 불리었으며 그것이 갖는 의미나 의의가 어떻게 하는 등등의 문제들이다. 늦어도 8세기 중엽부터 신라인들은 자신의 왕경인 金城을 동경이라 부르기 시작하였으며, 그 밑바탕에는 당시 크게 高揚된 문화 수준과 그에 따른 自尊의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나라와 대등하다는 자존 아래 그 수도였던 長安이 西京으로 불린 데 대한 대응으로서 금성을 동경이라 부르는 인식이 생겨나 확산되어 갔던 것이다. 물론 그것이 공식적 입장은 아니었으며 일각에서 당 문화 일변도에 대한 대응이다. 그런 점은 822년 金憲昌이 난을 일으키면서 국호를 長安이라 내세우고 慶雲이란 연호까지 사용한 데도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 만일 이런 추정이 설득력을 갖는다면 앞으로 신라의 내부 문제 뿐만 아니라 羅唐의 외교관계도 전면적 재검토를 거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주제어 : 동경, 금성, 장안, 서경, 경운, 처용가, 단속사, 신행선사비.

1. 문제의 제기

다 아는 바와 같이 역사학은 기록으로 남아있는 史料를 근간으로 해서 존립하는 학문 분야이다. 그런 까닭에 역사학에서 사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역사적 사실을 복원하려고 시도할 때 기본 사료는 언제라도 조심스럽고 엄격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료가 항상 동일한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남겨질 당초부터 그 속에는 여러 요인으로 말미암아 불순물이 적지 않게 스며들으로써 실제 일어난 事實 자체를 흐려 놓기 십상

이다. 게다가 다시 그들이 傳承, 轉寫, 記錄 및 재정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간혹 착각이나 착오, 혹은 특정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의도적 조작까지 끼어들어 때로는 原狀을 더욱 크게 오염시키기도 한다. 사료를 늘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데에 있다.

현재 남겨진 사료 자체가 실상을 그대로 온전히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단언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기록자의 다양한 시각과 입장이 항상 작용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실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동일한 대상을 다룬 모든 사료 각각에 대해서 내재한 무게를 달아보는 일이 필수적 과업이다. 그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玉石을 가려내는 구체적 작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과거 일어난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기 위한 기초적 작업을 충칭해서 흔히 史料批判이라 일컫는다. 어떤 경우라도 정리된 사료 속에는 종종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애물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때때로 예기치 못할 정도의 엉뚱한 결과로 이어질 소지를 안고 있기도 하다. 가령 ‘高麗’라는 국호를 그런 사례의 하나로서 손꼽을 수 있을 듯하다¹⁾.

高句麗는 5세기의 어느 무렵 국호를 ‘고려’라고 고쳐 부르기 시작하였다. 현재로서는 ‘고려’란 새 국호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첫 시점을 가늠하기는 힘드나²⁾ 이후 그것이 점진적 과정을 밟아 차츰 정착되어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양자는 일정 기간 병용되었다가 ‘고구려’의 사용은 줄어드는 경향을 뚜렷이 보인 반면, 점점 ‘고려’ 일색으로 자리 잡아간 것 같다. 그런 실상은 당대 사료를 점검하면 여실히 드러난다.

1) 古朝鮮이라는 국호도 그런 사례의 하나로 손꼽을 수 있다.

2) 고구려의 국호 변경에 대해서는 金鎮熙, 「高句麗國號表記의 變遷에 관한 考察」(嶺南大教育大學院碩士論文, 1989); 李殿福, 「高句麗가高麗と改名したのは何時か?」『高句麗・渤海の考古と歴史』(學生社, 1991); 鄭求福,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察」『湖西史學』 19·20(1992) 등을 참조.

논란이 많아 현재로서는 건립 시점을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5세기의 것임이 확실한 中原高句麗碑에서는 고구려의 국왕을 ‘高麗太王’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런데 그보다 약간 뒤늦은 5세기 말 작성된 北魏의 孝文帝가 고구려의 文咨王에게 보낸 ‘高句麗王 雲에게 주는 조서’라는 글에서는³⁾ 여전히 ‘고구려’란 국호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양자가 국제관계상에서 일정 기간 병용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중국의 남북 兩朝가 5세기를 통해 고구려 국왕을 책봉하면서 때로는 ‘고구려왕’, 때로는 ‘고려왕’이라고 명칭하고 있음은 그런 실상을 방증하기에 충분한 사례이다.

그러다가 7세기 중엽 唐의 태종이 거의 동시에 추정되는 시점에 백제의 義慈王과 善德女王에게 각기 보낸 두 조서 속에서는⁴⁾ 모두 ‘고려’란 국호로 통일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6세기 이후의 어느 무렵부터는 ‘고려’만이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⁵⁾ 국제적으로도 정식 국호로서 통용되고 있었다고 단정하여도 무방하겠다. 6세기 이후 고구려를 입전하고 있는 『周書』, 『隋書』, (新舊)『唐書』 등 중국 正史의 東夷傳(혹은 異域傳)에서는 모두 한결같이 ‘高麗傳’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 데서⁶⁾ 그런 사실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데 12세기 중엽인 고려 仁宗代(1123-1147)에 왕명으로 편찬한 紀傳體의 사서로서 고구려 전체 역사를 다룬 『삼국사기』에서는 정작 ‘고구려’를 ‘고려’라 칭한 사례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⁷⁾. 거의 모든 기록

3) 朱甫墩, 「《文館詞林》 소재 外交文書」 『慶北史學』 15(1992) ; 『금석문과 신라사』(지식산업사, 2002).

4) 위와 같음.

5) 흔히 6세기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延嘉七年銘金銅佛像 光背에도 ‘高麗國’이라고 하여 ‘고려’로 표기하였다.

6) 다만, 『南史』와 『北史』에서는 예외적으로 高句麗傳을 입전하고 있는데 이는 5세기부터 시작하는 남북조 시기를 일괄적 대상으로 삼고 있는 데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에서는 고려란 국호를 동시에 사용하였다.

7) 다만, 『三國史記』 7 新羅本紀 文武王 11년條에 唐將 薛仁貴가 文武王에게 보내는 글이나,

은 ‘고구려’로 말끔히 정리된 것이다. 그를 일별하면 의도성이 강하게 개입되었음이 뚜렷이 확인된다. 중국 정사에 실린 특정 기사를 原典으로 삼았음이 분명하며, 그곳에서는 ‘고려’라 표기되었음이 확실한 데도⁸⁾, 이를 모두 ‘고구려’로 바꾸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의 편찬을 시작하면서 그런 방침을 기본적 凡例로서 전면에 내걸었음을 유추케 하는 대목이다. 아마도 고구려가 현실의 고려와 자칫 혼동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일정한 수준의 사료 조작이 감행되었음을 뜻한다.

한편 승려 一然이 13세기 후반 편찬한 『삼국유사』에서는 곳곳에 ‘고구려(혹은 그를 줄인 구려)’와 ‘고려’가 뒤섞여 『삼국사기』와는 전혀 다른 특징적 면모를 보인다. 『삼국유사』는 개인에 의한 사찬의 사서인 까닭에 어떤 특별한 편찬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하면 본래의 원전 그대로를 옮기고자 한 데서 비롯한 현상일지 모르겠다. 다만 원전 그대로를 옮겨둔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였으면서도 때로는 원래의 자료에서는 ‘고려’라 표기되었지만 의도적으로 ‘고구려’로 고친 몇몇 사례가 발견된다⁹⁾. 이는 사찬이었던 탓에 굳이 하나의 일관된 원칙만을 내세워 철저히 지킬 필요가 없던 데서 온 당연한 결과였다고 풀이된다. 어쩌면 원전의 상태에 따라 달리 취급하였을 수도 있고, 또 고치려고 시도하였지만 완벽한 목적 달성에는 실패한 데서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어쨌든 이는 일연이 자신의 소속 왕조인 고려를 고구려와 의도적으로 구분하려고 굳이 애써지는 않았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그에 대한 答書가 원문으로 실린 경우는 예외로 손꼽을 수 있다. 이는 『三國史記』 찬자가 述而不作하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8) 『三國史記』 19 高句麗本紀 文咨明王 13年條의 기사는 『魏書』 100 東夷傳 高句麗條의 것을 그대로 옮겼던 것인데 원전에는 高麗라 한 것을 고구려로 바꾸고 있다. 문자명왕 17년조에서는 『梁書』 54 高句驪傳의 기사를 옮기면서 역시 고구려를 고려로 바꾸었다.
- 9) 이를테면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인용하면서 거의 대부분을 ‘고려본기’로 고쳐 표기한 사례를 손꼽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보면 고구려가 스스로 5세기의 어느 시점에는 고려로 국호를 바꾸었는데, 이후 한동안 양자가 병용되다가 6세기의 어느 시점부터 점점 후자로 정착되어 갔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사정이 고구려 멸망 뒤 정리된 중국 측 문헌 기록에서는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지만 뒷날 고려왕조가 고구려사를 정리하면서는 정작 그렇게 하지 않았다. 특히 관찬 사서인 『삼국사기』에서는 원전이 여하하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고구려로 고쳐서 정리하였다. 반면 사찬 사서인 『삼국유사』에서는 의도적, 혹은 때로는 착각으로 말미암아 고친 부분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은 원전 그대로를 옮겼으므로 고려라고 표기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 이로 말미암아 일찍이 고구려가 고려라고 국호를 고쳤던 역사적 사실 자체조차 드러날 기회는 없어지고 말았다.

이처럼 사료가 뒷날 의도적 목적 아래 조작됨으로써 중시해 볼 만한 역사적 의미를 놓쳐버리거나 자칫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가령 고려왕조의 국호 자체가 일반적 이해처럼 단순히 고구려를 줄여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꾸어진 그대로를 승계한 것이라 한다면 거기에 내재된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다양하게 해석해볼 여지가 얼마든지 생겨난다. 이는 고려왕조가 국호를 그렇게 내세워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나가겠다고 표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前)고구려를¹⁰⁾ 그대로 부활, 승계하였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려 한 것으로 생각했을지 모를 일이다. 때로는 고구려를 前高麗라 부르기도 한 사례가 있음은 그런 실상을 반영해 주고 있다¹¹⁾.

‘고려’란 국호의 경우와 사정이 똑 같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대단히 유사한 사례는 ‘東京’이란 지명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935년 신라

10) 『三國遺事』 3 塔像 高麗靈塔寺條에서는 ‘僧傳’을 인용하면서 고려와를 구분하여 ‘前高麗’라 하고 있음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되는 대목이다.

11) 그런 측면에서 발해가 고구려의 정통성을 표방하였다는 입장만을 내세운 것과 내재된 의미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가 고려에 투항하자 태조 왕건은 특별히 항복해와 더할 나위 없이 경사스럽다는 뜻에서 그 왕도를 ‘慶州’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다가 成宗 6년에 이르러서¹²⁾ 이제는 경주를 높여 東京이라 부름으로써 이것이 점차 별칭으로 정착되어 갔다. 말하자면 동경이란 지명이 일반적으로 고려 성종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 것이라 여겨져 온 것이다.

그러나 만약 경주가 ‘동경’으로도 불리기 시작한 시점이 고려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의 신라 때부터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석될까. 만일 그러하다면 기존 이해 가운데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적지 않을 터이다. 사실 신라 통일기에 자신의 왕도를 ‘동경’이라 불렀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당대의 기록이 몇몇 찾아진다. 그렇다면 고려에서 사용된 동경이란 경주의 별명도 새로이 생긴 것에 아니라 앞서 본 국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신라 때의 그것을 그대로 이었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대부분 연구자들이 그 동안 강한 선입견에 치우친 나머지 이를 너무 쉽게 부정하면서 뒷날 고려시대의 것을 소급, 부회한 것이라 단정해 버렸다. 그 까닭으로 거기에 내재된 중대한 의미를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하고서 그대로 지나쳐버린 경우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만일 신라인들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이라도 비공식적으로 자신의 왕도를 ‘동경’이라 인식하고 있었음이 확실하다면 이는 나름대로 음미해볼 만한 충분한 대상이 되겠다. 기존 신라사를 새롭게 이해해볼 여지를 적지 않게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章을 달리하여 그 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2) 『高麗史』 57 地理志 東京留守官慶州條.

2. ‘東京’의 실재

신라 당대에는 정치적·문화적·경제적 중심지라 할 수도를 金城으로 공식 표기하였음은¹³⁾ 다 아는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이 금성은 徐羅(斯盧, 斯羅)伐을 訓借한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유관 사료를 일별하면 금성은 처음 宮城을 가리키는 용어로서 출발하였음이 드러난다¹⁴⁾. 뒷날 月城이 축조되어 이것이 궁성으로 공고히 자리하게 됨으로써 금성은 왕도 전체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확대되어 갔던 것이다.

통일기에 이르러 신라는 영토 전체를 대상으로 郡縣制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를 한마디로 9주5소경이라 부르고 있다. 이후 금성은 지방의 요충지에 두어진 5小京에 대응하는 왕경의 의미로서 大京¹⁵⁾, 혹은 金京이라¹⁶⁾ 불리기도 하였다¹⁷⁾. 이는 신라인들이 늦어도 6세기 이전 자신의 왕도를 ‘큰 고을’이란 뜻의 健牟羅라 하였던 것과¹⁸⁾ 일맥상통한다. 것처럼 신라 왕도가 건모라, 대경, 금경 등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였지만 정식의 명칭은 특정 시점 이후에는 금성이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삼국유사』를 일별하면 신라 왕도와 관련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명칭이 발견되는데, 그것이 東京이다. 이를테면 興法篇 東京興輪寺金堂十聖條의 ‘東京興輪寺’, 塔像篇 三所觀音 衆生寺條의 ‘東京衆生寺’, 天龍寺條의 ‘東京高位山天龍寺’, 義解篇 圓光西學條의 ‘東

13) 『舊唐書』 199 列傳 東夷傳 新羅條 및 『新唐書』 220 東夷傳 新羅條.

14) 『三國史記』 34 地理志 序文.

15) 華嚴經墨書紙片跋文.

16) 關門城城壁石刻.

17) 문헌사료나 금석문에서는 그밖에 京師란 표현이 자주 사용되나 이는 왕경을 가리키는 보통명사에 지나지 않는다.

18) 『梁書』 54 列傳 諸夷傳 新羅條.

京安逸戶長', 壤梨木條의 '東京掌書記' 등에 동경이란 지명이 보인다. 이 다섯 사례 가운데 뒤의 4개는 내용상으로 보아 고려시대의 경주를 지칭하는 지명임이 거의 확실시된다. 다만 '동경홍륜사'의 경우만은 반드시 것처럼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을 갖고 있다. 거기에 실려 있는 내용 자체가 고려 때의 것이 아니라 신라 시대의 사정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라 최초의 사찰인 홍륜사가 고려 때까지 변함 없이 온존되었다면¹⁹⁾ 거기에 보이는 동경을 꼭 이때의 것으로 간주하여도²⁰⁾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그런데 다음에 소개하는 處容歌란 향가에서 확인되는²¹⁾ '동경'이라면 약간 다르게 이해할 여지가 생겨난다. 널리 알려진 대로 처용가의 첫머리에는 '東京'이란 지명이 보이 때문이다.

신라 49대 憲康王(875-886)이 울산 앞바다의 開雲浦에 행차하였다가 동해의 용왕과 遭遇하고 온갖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마침내 그의 일곱 아들 가운데 하나인 처용을 데리고 왕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헌강왕은 이후 처용으로 하여금 국정을 보좌해 주도록 요청하면서 그에게 級干의 관등을 지급하고, 나아가 어떤 미녀와의 혼인을 주선해 주기까지 하였다. 왕경에 머물던 처용이 어느 날 출타했다가 귀가하던 중 疫神이 그의 아내를 흠모하여 잠시 사람으로 변신해 私通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처용은 눈앞에서 당장 문제로 삼지 않고 일단 춤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물러났다고 한다. 이때 불렀던 노래가 鄉歌로 정리되었으니 뒷날 널리 알려진 처용가가 바로 그것이다.

처용 자체가 실제로 어떤 성격의 인물을 상징하는지를 둘러싸고서

19) 『三國遺事』 3 塔像 興輪寺壁畫普賢條. 金相鉉, 「三國遺事の 歴史方法論的 考察」 『東洋學』 23, 1992에서는 10성을 일연이 직접 실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 韓基汶, 「新羅 下代 興輪寺와 金堂 十聖의 性格」 『新羅文化』 20 (2002), p.184 ; 曹凡煥, 「東京 興輪寺 金堂 十聖에 대한 再論」 『삼국의 초전 불교와 그 특징』(신라문화재학술회의 논문집35, 2014), p.118.

21) 『三國遺事』 2 紀異 處容郎 望海寺條.

그 동안 몇몇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하여 왔다. 여하튼 내용 자체가 설화적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모두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겠다.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동경은 소홀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대상이다. 처용가가 고려시대에 정리되면서 것처럼 고쳐진 것으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지만²²⁾, 만일 그렇다면 처용가의 내용은 물론이려니와 『삼국유사』에 실린 그밖의 다른 향가 13수의 경우에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마땅한 일이겠다. 그렇지 않다면 동경만이 왜 하필 그렇게 고쳐졌어야 하였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적절한 이유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서 해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만일 것처럼 쉽게 고쳐질 성질의 것이라면 향가 연구는 출발부터 자료상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 되므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려를 굳이 고구려로 고치지 않고 가능하면 원전 그대로를 轉載하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한 『삼국유사』의 찬자가 쉽사리 그렇게 주요 단어를 멋대로 바꾸었을 리는 만무한 일이다. 다른 향가를 것처럼 고친 유사한 사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오직 동경만을 그렇게 바꾼 것으로 볼 하등의 이유는 없겠다. 일단 처용가가 작성되었을 당시 신라 왕도를 것처럼 동경이라 부르고 있었다고 봄이 올바른 접근 방식이겠다. 것처럼 왕도를 동경이라 불렀을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또 다른 사례가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A) 又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 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皇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鎮 第一層日本 第二層中華 第三層吳越 第四層托羅 第五層鷹遊 第六層靺鞨 第七層丹國 第八層女狄 第九層穢貊(『三國遺事』 3 塔像 皇龍寺九層塔條)

신라는 642년 백제 義慈王(641-660)으로부터 전면적 공세를 받아 낙

22) 李基文, 『新訂版 國語史概說』(태학사, 1998), p.91.

동강 以西의 옛 가야 땅 거의 전부를 상실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아 정치적 내분을 격심하게 겪는 등 한창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때 唐에 유학하였다가 갓 돌아온 慈藏이 당면한 신라의 대내외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호국의 중심 도량인 皇龍寺에다가 9층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를 받아들인 善德女王(632-647)이 마침내 645년 9층목탑을 완성하게 되거니와 위의 기사는 그런 배경과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술하고는 말미에 일연 스스로가 지은 讚詩를 덧붙이고 나서 다시 그 아래에다가 마지막으로 앞의 내용을 보증할 목적에서인지 해동의 명현인 安弘이 편찬하였다는 『東都成立記』를 이끌어 소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9층탑을 완성함으로써 장차 신라에게 복속해 오리라 예상되는 아홉 오랑캐인 9夷, 또는 9韓의 이름을 들어 각 층에 대비시켜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각별히 주목되는 사항은 安弘이란 인물이 편찬하였다는 『동도성립기』란 책에 보이는 ‘東都’란 표현이다. 『삼국유사』에서도 ‘東都’란 사례가 몇몇 보이는데²³⁾ 이들은 모두 동경의 일명으로서 경주를 지칭함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위의 동도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고려시대의 경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어떤가가 문제로 부상한다.

해동의 명현이라는 안홍이 고려의 승려가 아니라 신라의 승려이어서²⁴⁾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다. 안홍은 13세기 초 승려 覺訓이 편찬한 『海東高僧傳』에 의하면²⁵⁾ 安舍과 동일한 인물로 비정되고 있다. 안함은 흥륜사 금당의 신라 10聖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내세워진 바로 그 인물이다. 『해동고승전』에는 안함이 이찬 金詩賦의 손자로서, 600년 수나라에 유학하였다가 605년 중국 및 인도의 승려 몇몇과 함께 들

23) 『三國遺事』 3 塔像 天龍寺條 및 5 感通 善律還生條.

24) 『동도성립기』를 매개로 해서 거꾸로 안홍을 고려시대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末松保和, 「三國遺事の經籍關係記事」 『靑丘史草』 2 (1966)) 이는 지나친 추정이다.

25) 『海東高僧傳』 전반에 대해서는 章輝玉, 『海東高僧傳』(民族社, 1991) 참조.

아왔다고 전한다. 안함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과 관련한 예언서 한 권을 지었으며, 거기에서 그는 마치 자신이 직접 목도한 듯이 호기롭게 예언하였는데 뒷날 그것이 뚜렷이 입증되었다는 것이다. 그 속에는 선덕여왕이 장차 切利天에 묻히게 될 일, 무열왕과 문무왕에 의해서 이루어질 삼국통일 등등의 사건도 예언 대상으로 들어 있었다고 한다. 안함은 640년 萬善道場에서 62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이를 역산하면 안함은 579년 출생한 셈이 된다.

그곳에서 인용한 崔致遠의 「義湘傳」에 따르면 안홍은 625년 귀국하였다고 하므로 두 사람의 활동 시기 사이에는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그래서 『해동고승전』의 찬자 覺訓도 실제로 두 사람을 동일한 인물이라 간주하면서도 혹여 서로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어긋나는 추측을 하고 있다. 한편 『삼국사기』에서는 진흥왕 37년(576) 안홍이 인도 승려 毗摩羅 등 2인과 함께 귀국하였다고²⁶⁾ 한다. 이처럼 양자의 활동한 기간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외국 승려들과 함께 귀국한 행적이 비슷하였던 까닭에 각혼은 두 사람을 동일한 인물로 비정하였던 것이다²⁷⁾. 일단 활동 시기만을 놓고서 본다면 두 사람은 각기 별개의 인물일 가능성이 한층 크다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안홍과 안함은 실존한 승려임은 분명하나 약간의 착란이 개재되어 동일인인지 아닌지 명확하게는 단정할 수 없게 되었다²⁸⁾. 『해동고승전』에서는 안함이 말년에 예언서를 지었다지만 그 책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만일 안홍과 안함이 같은 인물이라면 예언서 그것이 곧 『동도성립기』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약간의 문제는 거기에 보이는 9夷의 실체 대해서이다.

일반적으로 9夷의 구체적 國名(혹은 族名) 가운데 吳越, 丹國, 女眞

26) 『三國史記』 4 新羅本紀 眞興王 37年條.

27)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民族社, 1992), pp.232-237 참조.

28) 이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辛鍾遠, 위의 책, p.235의 註9)를 참조.

등이 나말 여초에 나타나므로 『동도성립기』 자체가 흔히 이때에 쓰인 것이라고 주장되고 있다²⁹⁾. 사실 그에만 한정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없지도 않다. 『삼국유사』 馬韓條에서는 그와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³⁰⁾ 비슷한 내용을 인용하면서 단지 ‘海東安弘記’라고만 표현하였다. 이것이 곧 『동도성립기』를 지칭함은³¹⁾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9韓(夷)의 구체적 명칭은 후대에 부회하였을 공산이 크다. 그 점은 皇龍寺刹柱本記(舍利函記)를 통해서도 읽어낼 수 있다.

872년 황룡사를 중창하면서 心礎石에다가 만든 사리공 안에서 사리함이 출토되었다. 그 사리함에는 황룡사 목탑 건립 이야기에 관한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를 흔히 황룡사찰주본기라고 부른다. 명문에는 목탑 건립의 추진 배경과 과정 등의 대강이 소개되어 있는데, 대체로 『삼국유사』에 보이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거기에는 탑을 완성하면 ‘海東諸國 渾降汝國’라 하여 ‘해동의 여러 나라들이 신라에 항복해 올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果合三韓’이라고 하여 ‘과연 삼한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삼한이 삼국을 지칭함은 물론이다. 이로 보면 황룡사 9층목탑을 건립하면서 노렸던 목적은 바로 눈앞의 적국 백제의 공격을 물리치고 나아가 그를 병합하겠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고구려까지 포함함으로써 三韓을 통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마 안함도 바로 640년 입적하기 바로 직전 그와 같은 희구를 표출하여 9층탑의 건립을 주장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된다. 혹시 그에 앞서 안함도 앞서 비슷한 내용의 讖書를 지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覺訓이 서

29) 前問恭作, 「新羅王之世次とその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1925) ; 武田幸男, 「創寺緣起からみた新羅人の國際觀」 『中村治兵衛古稀記念東洋史論叢』(1986) ; 李丙燾, 『高麗時代の研究』(을유문화사, 1948) ; 盧明鎬, 「高麗時代の多元的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1999), p.10.

30) 이를테면 托羅를 毛羅, 女狄을 女眞이라 하였다. 이는 轉寫 과정에서 빚어진 착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31) 辛鍾遠, 앞의 책, p.241.

로 다른 두 사람을 동일인으로 착각하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9夷의 실체로 미루어 흔히 『동도성립기』는 고려에서 작성되어 7세기의 안흥에게 부회되었다고 추정하고 나아가 이 동도가 흔히 고려시대의 경주를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런 추정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그 책이 고려시대 경주를 동경이라고 부르게 된 성종 이후 쓰였다는 사실도 반드시 입증되어야만 한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언서의 저자를 신라의 고승에게 돌리면서 하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東都란 지명을 굳이 사용하였다는 자체는 이상스럽게 그지없는 일이다. 『동도성립기』라는 책명을 사용해서 굳이 신라시대에 쓰인 예언서로 위장하려 하였다면 당시의 지명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함은 매우 의아한 느낌이 든다. 따라서 이때의 동도는 반드시 뒷날 고려의 동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라 왕경을 그렇게 지칭하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할 듯하다. 신라에서 동도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이를 隋의 동도로서 洛陽을 가리킨다는 주장도³²⁾ 제기되어 있지만, 9층목탑 건립이 주된 내용으로 들어 있으므로 그것이 신라 왕경을 가리킨다고 봄이 순조롭다.

통일기에 신라인이 자신들의 왕도를 동경이라 불렀다는 결정적 근거는 산청의 斷俗寺에 세워진 神行禪師碑를 통해 뚜렷이 확인된다. 이 비는 신행선사가 입적한 779년으로부터 35년이 지난 813년에 세워졌다. 찬자는 당시 병부령 金獻貞으로서 뒷날 즉위한 僖康王(836-838) 悌隆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비석 자체는 조선 후기에 일실되어 현재 남아 전하지 않지만 그 탁본 전문이 중국에까지 알려져 『海東金石苑』에 수록됨으로써 다행히 전체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탁본조차 없어져버려 비의 원상을 추정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무척

32) 辛鍾遠, 위의 책, p.234.

다행스럽게도 조선 숙종 연간에 朗善君 李俛가 정리한 『大東金石書』에 그 일부가 실려 있다.

비문에 의하면 신행선사는 ‘俗姓金氏 東京御里人也 級干常勤之子 先師安弘之兄曾孫’이라고 하여 동경의 御里 출신으로서 아버지는 급간 상근이며, 앞서 언급한 안홍이 그에게는 증조부의 동생이 되는 사람이다. 비문이 작성된 시점은 813년이었으므로³³⁾ 거기에 보이는 동경은 신라의 왕도인 금성을 가리킴은³⁴⁾ 확실시된다. 혹여 실물이나 탁본이 없으므로 약간 문제시될 수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위에서 언급한 『大東金石書』 속에 이 부분이 남아서 전한다. 만약 뒷날 탁본을 근거로 목판본을 만들었다거나, 나아가 그런 과정에서 당해 부분을 의도적으로 동경이라고 고쳐지지 않았다면 이는 이미 신라 당대에 813년을 하한으로 해서 왕도를 동경이라 부르는 어떤 흐름이 있었음을 입증하여 주는 자료이다³⁵⁾.

그렇다면 이미 언급하였듯이 향가인 처용가에 보이는 동경도 바로 당대적 표현이라 하여도 어긋나지는 않을 듯 싶다. 어쩌면 『동도성립기』란 책명도 비록 안홍에게 부회하였으나 고려가 아닌 羅末 혹은 그 이전이라고 하여 조금도 부자연스럽지가 않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 성종대부터 경주를 갑작스레 동경이라 부르게 된 사실도 오히려 皇都인 개경을 중심으로 해서 방위상 설정된 것이 아니라³⁶⁾ 기왕에 사용하였

33) 비문의 작성자가 김현정이어서 동경은 이 사람의 생각일 수도 있다. 다만 김현정이 비문을 작성해 주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一群으로 묶어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진다. 신행이 인홍의 증손이라고 한 것도 동경(동도)란 영어 사용의 측면에서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런 의식을 지닌 특정한 집단이 존재함을 상상케 하는 것이다.

34) 최홍조,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木簡과 文字』 11(2013), p.227 ; 郭承勳, 「關[俗]寺神行禪師碑」 『韓國金石文集(12)』 (韓國國學振興院·靑溪文化財團), p.27.

35) 893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良州 深源寺의 秀澈和尚塔碑에는 ‘東原京’이 보이는데 이를 동경과 같은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내용상 김해의 금관소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하다. 이밖에 「天竺山佛影寺記」에 인용된 ‘新羅古碑’에 ‘唐永徽二年義湘法師自東京운운’이라 하여 경주를 지칭하는 동경이 보이지만 신라고비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 논의하기는 어렵다. 위의 ‘불영사기’는 고려 공민왕 19년(洪武 3년으로 1370년) 翰林學士 柳伯儒가 쓴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곽승훈, 『新羅金石文研究』 (韓國史學, 2006), pp.45-46 참조.

던 지명을 자연스레 부활시켰다고 해석해 볼 여지가 생겨난다. 어쩌면 이미 太祖대부터 고구려의 평양성을 西京이라 부르고 있는 마당에³⁷⁾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를 동경이라고 불러줌으로써 고려 왕조 자체가 두 왕조의 문화를 병합, 승계하였다는 의식을 드러내어 보이기 위한 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³⁸⁾.

그것은 여하튼 동경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이미 신라에서 왕경의 별칭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이 오래도록 드러내어 놓고 공식화되지는 않았다가 성종대(982-998)에 이르러 이제는 공식 지명으로서 화려하게 부활하기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 거기에는 신라의 후예들이 고려의 정치적 핵심 세력으로 진출한 사실이 나 혹은 그럴 만한 사유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동경이 어떤 연유로, 언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어떠한지 하는 쪽으로 돌려볼 필요성이 자연히 생겨난다.

3. ‘東京’ 의식의 기반과 배경

신라인이 어느 시점부터 자신들의 왕경을 ‘동경’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면 그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다른 표현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

36) 방위를 고려하였다면 평양은 北京이 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럼에도 西京으로 명명한 것은 이미 신라의 왕도를 동경이라 부르고 있는 현실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37) 『高麗史節要』 1 太祖5年條. 서경에 대해서는 河炫綱, 「高麗 西京考」, 『歷史學報』 35·36 ; 『韓國中世史研究』 (1988) 및 蔣尙勳, 「高麗 太祖의 西京政策」,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서울대출판부, 1996) 참조.
 38) 『高麗史』 92 列傳 崔凝傳에 의하면 태조가 신라의 9층탑 건립의 예를 끌어들이어 西京에 9층탑을 세움으로써 ‘合三韓爲一家’하려 하였다는 사실도 그 점을 생각하는 데 참고로 된다.

라 그 속에 나름의 새로운 인식이 깊숙이 스며든 결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동경, 혹은 그 일명으로서의 東都는 원래 隋와 唐의 副都로 기능한 낙양을 뜻하는 명칭이었기 때문이다.

수나라의 煬帝는 아버지 文帝를 시해하고서 즉위하자마자 낙양이 전체 영토의 중심에 위치해 山東과 江南을 제압할 수 있는 유리한 곳이었고, 또 사면이 서로 통해 있어 수륙교통에 편리하다고 여겨 천하의 물산을 집결시키는 데 안성맞춤인 중심 기지로서 적극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를 목적으로 수많은 인력을 동원해 長江까지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낙양을 동경, 또는 동도라고 부르고 기존의 수도 장안은 西京, 西都라고 불렀다. 이런 兩京體制는 당 왕조에 도 그대로 이어졌으며 특히 高宗 재위 시의 실권자였던 則天武后는 대부분의 시간을 동도인 낙양에 머물면서 보내었다. 그래서 동도를 각별히 중시하다가 高宗가 사망한 직후인 684년에는 神都라고 높여서 수도로 삼으려는 생각까지 갖기도 하였다³⁹⁾. 당에 대신하는 새로운 무씨 왕조의 개창과 맞물려 진행된 일이었다.

그런 사정 전반을 헤아리면 신라에서 자신의 왕도를 각별히 동경이라 불렀던 흐름은 예사로이 보아 넘길 수는 없는 대상이 된다. 다만 그럴 때 유념해야 할 사항은 신라 정부가 그 사용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은 아니었으며, 일각에서만 그렇게 불렀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다. 신라 중앙정부가 동경을 공식 지명으로서 채택해 표방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후술하듯이 신라의 현실 지배세력 주류가 아닌 비주류 일각에서 동경을 비공식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경을 사용한 인물들은 울산 출신의 처용이나 산청 단속사에 주석한 신행과 같이 지방민, 혹은 원래 왕경인이

39) 『新唐書』 38 地理志 東都條에 따르면 공식적으로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도, 낙양, 동경 등으로 고쳐서 불러 지명의 변화가 심하였다.

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주류가 아니었던 인물들로 보인다. 말하자면 어떤 세력 집단들이 당시 주류적 흐름에 대한 반감으로서 동경이란 지명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동경이 공식적 지명은 아니었어도 일단 그를 사용한 일련의 흐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상황 여하에 따라 그것이 주류적 흐름으로 부상할 여지를 갖고 있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신라 왕도를 동경이라 부르려는 움직임이 일어난 배경과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통일신라사의 흐름을 통해서 유추함이 적절하겠다. 흔히 中代의 문을 연 武烈王(654-661) 金春秋가 외교적 목적에서 唐文化의 수용에 적극 나섰고 그 결과 당을 끌어들이어 삼국통일을 이루게 됨으로써 스스로 마치 제후국인 듯이 저자세를 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기실 그에 앞서 독자적 年號를 포기한 점, 공식적 관복을 唐服으로 바꾼 점, 諸侯의 지위에 해당하는 五廟制를 자발적으로 채택한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그런 입장이 기본 정책으로 설정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다. 신라와 당의 관계 여하에 따라 冊封號에서는 약간씩 차이가 났지만 줄곧 책봉을 받았던 것도 그런 점을 방증해 주는 사실이다. 신라 중앙정부가 당과 공식적으로 맺은 그런 관계를 쉽사리 부정하기는 힘든 일이겠다. 그런 측면에서 渤海나 일본이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면서 책봉을 받지 않았던 사실과는 무척 대조되는 면모이다.

그처럼 기왕에 겉으로 드러난 對唐依存的 의식만을 일방적으로 摘示해서 강조하여 왔지만 이는 실은 일면적 이해에 불과하다. 신라가 당과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외교적 입장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밑바닥에 또 다른 흐름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 점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신라는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연합군인 당과 670년부터 676년에 이르기까지 명운을 건 최후의 전쟁을 치러나갔다. 계기는 어떻든 결과적으로 당을 한반도 바깥으로 내모는 데에는 일단 성공을 거두 셈이 되었다. 그렇지만 신라는 내심 당이 언제인가는 재침해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신라는 중원의 통일제국 수당이 지난날 고구려를 대상으로 호시탐탐 벌였던 일련의 전쟁 과정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당이 당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일시 물러나기는 하였지만 언젠가는 자신을 끝까지 굴복을 시키기 위해 재침해올 공산이 크다고 예상하였다. 그래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을 터이다. 그런 사정이 통일 이후의 지배체제 정비에 깊이 반영되었으리라 여겨진다.

한편, 663년 부흥운동까지 실패한 백제 지배세력이倭로 건너가서 망명정부를 세우고서 부활의 기회를 노리던 상황이었다⁴⁰⁾. 文武王(661-681)이 동해안에 感恩寺를 세우려 하였고, 자신은 죽고 난 뒤 동해의 용왕이 되어 佛國土 신라를 지켜내고자 한 의지를 드러내어 보인데서 그런 실상은 충분히 감지된다. 그런 전반적 분위기 속에서 신라는 당과의 우호관계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勝戰國이었음에도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어서 제후국 수준으로 자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승전국으로서의 강한 자부심, 자존심도 아울러서 지니고 있었다. 그 점을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 四天王寺의 존재이다. 사천왕사는 문무왕 19년(679) 완성을 본 사찰로서⁴¹⁾ 창건의 緣起說話는 『삼국유사』 紀異 文虎王法敏條에 다음과 같이 실려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전해진다.

당에 유학 중이던 義湘이 金仁問으로부터 직접 듣고서 급거 귀국해

40) 朱甫墩, 「《日本書紀》의 編纂 背景과 任那日本府說의 成立」 『한국고대사연구』 15(1999), pp.30-35.

41) 『三國史記』 7 新羅本紀 文武王 19年條.

신라 조정에 알린 당병 침공의 정보를 놓고 문무왕은 군신들에게 방비 대책을 물었다. 그러자 각간 金天尊이 明朗法師를 추천해 주었다. 명랑은 狼山 자락에 위치한 神遊林에다가 사천왕사를 짓고 道場을 개설하면 당의 침공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바로 얼마 뒤에 당병이 공격해온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즉각 명랑을 주축으로 한 瑜珈僧 12명이 임시로 덧집을 엮어 五方神像을 모셔두고서 文豆婁秘法을 짓자 미처 接戰하기도 전에 당병이 敗沒하였다고 한다. 이후에도 재차 그런 일이 되풀이되자 당에서는 김인문을 따라갔다가 옥중에 갇히게 된 翰林郎 朴文俊에게 신라가 취한 비책의 내용을 추궁하였다. 그러자 박문준은 신라 정부가 一統三國하도록 도와준 당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낭산의 아래에다 절을 짓고 ‘皇壽萬年’을 축원한다는 소문을 자신도 들었다고 답하였다. 이에 高宗은 禮部侍郎 樂鵬龜를 보내어 실상 여하를 실사케 하였다. 신라에서는 급히 사천왕사와는 별도의 세사찰을 인근에 지어서 당의 사신을 그곳으로 안내한 뒤 뇌물을 주어서 사태를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 수습하였다고 한다. 이 새로 지은 사찰이 곧 사천왕사 부근에 있는 望德寺이다.

사천왕사와 망덕사의 창건연기설화가 시사해 주듯이 통일전쟁을 거치면서 신라 내부에는 서로 상반되는 二重的 국제관이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다⁴²⁾. 전자가 反唐을 상징한다면, 후자는 곧 親唐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점은 통일 후 신라국가가 관리하는 호국사찰로서 7곳의 成典寺院을 두면서⁴³⁾ 사천왕사를 그 첫머리에 배치하였다는 사실이다. 반당적 성격을 대표하는 사천왕사가 성전사원의 첫머리를 차지한 반면 친당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망덕사는 애초에 성전사원으로 선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신라와 당의 관계 실상이 일

42) 武田幸男, 앞의 논문, pp.367-378.

43) 성전사원에 대해서는 李泳鎭, 「신라 중대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한국사연구』 43(1983) 및 蔡尙植, 「신라통일기의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부산사학』 8(1984) 참조.

반적으로 생각해온 것과는 꼭 그대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여실히 반영하는 사실이다. 성전사원 가운데 특별히 황제를 뜻하는 ‘皇’이란 글자가 들어간 사찰이 전혀 없는 것도 상당한 作爲性을 시사해 준다. 이는 친당의식이 주류적 위치를 차지한 가운데서도 반당 자립의식이 상존한 이중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라 하겠다.

사실 그 점과 관련하여 무열왕이 사망한 뒤 廟號를 太宗으로 설정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태종이란 묘호가 채택된 시점은 확실하지 않지만 武烈王陵碑의 건립으로 미루어⁴⁴⁾ 사망 이후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난 시점의 일은 아니었을 듯 싶다. 김춘추가 주도하여 당으로부터 유교문화의 수용을 표방하였고, 즉위한 뒤까지 그렇게 적극 추진해 온 마당에 굳이 당 태종의 묘호를 끌어들이려 사용한 것은 무열왕도 그에 비견할 수 있다는 신라인의 강렬한 자신감 표현으로 풀이된다. 김춘추가 당 태종을 직접 만나 담판하기도 한 특수한 경험이 거기에 영향을 미친 듯하다⁴⁵⁾.

그런 무열왕을 대상으로 태종이란 묘호를 사용한 것은 당 문화에의 일방적 예속성만을 추진한 상황에서라면 나오기 힘든 일이다. 얼마간 세월이 흐른 뒤인 神文王代(681-692)에 태종 묘호를 둘러싸고서 당과의 사이에 벌어진 논란에서도⁴⁶⁾ 그런 정황의 일단은 뚜렷이 읽힌다. 물론 이 논란은 바로 직전 전쟁을 치른 뒤 두 나라 사이에 생겨난 대립과 갈등의 앙금이 채 가시지 않고 긴장감이 감돌던 시점에서 전개된 외교관계의 실상을 잘 반영해 주고 있거니와 신라도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쉽게 꺾지 않고 관철시키는 자세를 굳게 견지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라가 당과의 외교관계가 완전하게 파탄이 날 수도 있다는 각오까지 하고

44) 朱甫墩, 「통일신라의 (陵)墓碑에 대한 몇 가지 논의」 『木簡과 文字』 9, 2012, pp.46-49.

45) 무열왕은 생존하고 있을 때 당태종을 이미 흠모하여 이미 그런 내용을 유언으로 남겼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46) 『三國史記』8 新羅本紀 神文王 12年條 및 『三國遺事』1 紀異1 太宗春秋公條.

서 자긍심, 자존심을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신라가 중고기 말부터 외교적 목적으로 당과 접촉하면서 그에 급속히 傾斜되기는 하였으나, 밀바탕에는 독립국으로서 오래도록 유지해 오던 자존심까지 일시에 내버린 것은 아니었다. 백제와 전쟁이 진행되던 도중 唐將 蘇定方の 역지에 반발한 金庾信이 당장에라도 당과 한판의 싸움을 벌일 듯 내비친 기세에서도⁴⁷⁾ 그런 모습이 감지된다. 이후 삼국통일의 성공 및 당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그런 의식을 크게 고양시키는 배경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추측된다. 혹여 재침할 지도 모른다는 데서 온 위기의식으로 말미암아 당과는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비록 스스로를 낮추어 접근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당하게 싸워 승전한 데서 온 자심감은 밀바탕에 충만한 상태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의식 아래 ‘一統三韓(三國)’이 걸으로 표방되고 나아가 그 구체적 실현으로서 전체 영역을 나름의 천하관이 담긴 지방통치조직인 9주5소경으로 재편하였던 것이다.

676년 신라와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써 고구려를 완벽하게 굴복시키려던 당의 오랜 숙원은 무위로 돌아갔다. 반면 신라는 마치 보란 듯이 고구려 영역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670년 망명해온 安勝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가, 674년에는 잠시 신라왕의 덕에 보답한다는 뜻을 내재한 報德王으로 책봉하였다. 그러다가 문무왕은 당과의 전쟁이 끝난 뒤인 680년 자신의 여동생을 안승의 처로 삼도록 하였다가 683년에 이르러서는 다시 그를 왕경으로 불러들여 蘇判으로 삼고 머무르게 함으로써 급기야는 보덕국을 없애버렸다. 이듬해 안승의 族子 大文이 그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키자 토벌하고서 주민을 모두 사민시킴으로써 진존 기반 자체를 송두리째 뽑아버렸다.

47) 『三國史記』 5 新羅本紀 太宗武烈王 7年條.

신문왕은 685년에는 9주5소경제를 완비함으로써 통일 이후 추진해 온 일련의 지방 재편 작업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이는 사실상 삼국 통합의 종료 선언으로서 일통삼한, 달리 말하면 백제와 고구려를 완전히 장악하였음을 대내외에 선포한 셈이었다. 9주 가운데 3주를 옛 고구려 영토로 설정하여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기실 고구려에 속한다고 비정한 영토 가운데에는 통일전쟁의 승리 결과로서 새로이 확보된 지역은 거의 없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어 있던 곳이었다. 멸망기의 고구려 영역 전부는 당이 장악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새로이 신라 영토로 들어온 땅은 전혀 없었던 셈이다. 그럼에도 신라가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장악한 것처럼 내세운 데에는 겉으로 그럴 듯하게 일통삼한을 이루어낸 듯이 보이기 위한 의도이며, 그에 따라 9주라는 신라 나름의 천하관이 성립되었음을 표방하려는 정치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통일이 중앙군사조직의 핵심이라 할 9摠幢 속에 신라민은 물론이고, 고구려, 백제민, 보덕민, 심지어는 말갈민까지 넣어서 구성한 것도 그런 의식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시책이었다.

이상과 같이 보면 통일 이후 언뜻언뜻 표현되었을 뿐, 겉으로 강하게 표출되지는 않았지만 신라인들은 삼국 통합에 따른 강한 자신감,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은 분명하다. 통일 과업 수행을 통하여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적 역량까지 하나로 엮어내고, 아울러 당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여 소화해냄으로써 신라문화가 절정기로 치닫고 있던 상황은 그런 의식을 한결 드높여 주었다. 737년 聖德王(702-737)이 사망하였을 때 당 玄宗이 조문 사절을 보내면서 신라를 당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보아 ‘君子之國’이라 표현하였음은⁴⁸⁾ 그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실이다. 이는 곧 당시 신라인 자신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한

48) 『舊唐書』 199 東夷傳 新羅條 및 『新唐書』 220 東夷傳 新羅條.

다. 그 점은 735년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절이 스스로를 王城國이라 내세움으로써 외교적 마찰까지 빚어진 데서도⁴⁹⁾ 유추되는 사실이다.

신라는 이제 형식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상당한 문화적 자긍심을 가질 정도의⁵⁰⁾ 성숙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이러한 전반적 분위기가 드디어 자신의 왕도를 東京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어쩌면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신이 내세운 왕성국 자체가 바로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다.

4. ‘東京’의 출현과 그 의미

신라는 나름의 자존심, 자긍심을 갖고 있기는 하였지만 五廟制의 실시에서 드러나듯이 기본적으로는 당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스스로 낮추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眞德女王(647-654) 즉위 이후 儒學 수용을 적극 추진해 가던 주도세력이 당의 國勢와 문화 수준을 익히 알고 있었던 데서 비롯한 당연한 결과였다. 한편, 삼국 통합을 달성하고 당과의 전쟁에서 일시 승리하였지만 사후의 외교적 처리가 그리 만만하지 않았던 저간의 사정도 그런 행태에 한몫을 하였다. 이 무렵 신라의 지배층이 자신의 祖上世系를 중국의 三皇五帝 전설상의 가상 인물인 小昊金天氏에다가 연결짓고자 한 사실도⁵¹⁾ 그런 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8세기에 들어와서부터 당이 신라의 문화 수준을 인정하여 君子國이

49) 『續日本記』 12 聖武紀 天平7年 正月條.

50) 하일식,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 37(2000), pp.82-87.

51) 文武王陵碑 및 『三國史記』 42 列傳 金庾信傳上.

라고 불러 주었더라도 그 자체가 곧장 당과 대등하다는 인식으로까지 직결된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 입장에서 그런 인식을 공식적으로 드러 내기가 무척 곤란하였을 터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와 같은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바깥으로 표출될 만한 상황은 차츰 갖추어져 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당에서는 변경의 節度使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전역은 차츰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것이 마침내 신라 내부 일각에서 자존심의 한 표현으로서 자신의 왕도를 東京이라 부르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 같다. 당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려 한 중앙정부의 기본적 입장에 대한 반발이었다.

신라는 신문왕, 孝昭王代(692-702)를 거치면서 당에다 각각 한 차례씩만 사신을 파견하였을 뿐이었다. 기록상의 누락은 고려하더라도 그것은 676년 停戰(혹은 休戰) 이후 두 나라 사이의 상당히 소원해진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 사이의 갈등은 우호관계로 쉽게 전환되기 어려울 정도로 전쟁의 餘震이 작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일이다. 물론 그 동안 각기 당면한 내부의 지배체제 정비에 힘을 쏟고 있던 까닭에 정상적 관계를 회복할 여유를 제대로 갖지 못한 데서 말미암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성덕왕대에 이르러서는 갑작스레 매우 자주 사신을 주고받게 되었다. 성덕왕은 재위 기간 37년 동안 무려 46차례에 걸쳐 당에다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심지어 어떤 때는 1년에 세 차례씩이었던 경우까지⁵²⁾ 있었다. 이처럼 빈번하게 사신을 파견한 것은 두 나라의 관계가 거의 완전하게 군사동맹관계 시절의 수준까지 회복되었음을 뜻한다. 아마도 이 무렵 정상적 관계를 맺었을 수 있게 된 데에는 두 나라 각각 과거 전쟁을 주도한 책임자들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세대 교체 현상이 진행된 데서 온 자연스런 결과였을 가능성도 있다.

52)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 遣唐使研究』(일조각, 1997), pp.45-57.

모처럼 회복된 두 나라의 우호관계가 한결 굳건하게 다져진 계기는 732년 발해가 산둥반도의 登州를 공격하였을 때 당이 신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라가 그를 받아들여 발해의 남쪽 국경을 공격해 주었던 사건이었다⁵³⁾. 눈이 많이 내린 까닭에 비록 신라는 별다른 전공을 올리지 못하는 못하였지만, 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날 영역화한 옛 고구려의 영토로서 오래도록 방치해 둔 溟江 이남의 땅을 신라 영토로 승인해 주었다⁵⁴⁾. 이로써 신라는 영토상으로 명실상부하게 일통삼한을 이룬 셈이 되었다.

그런데 남북으로 대치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던 발해가 당을 공격한 사실 자체는 신라로 하여금 당이란 존재를 새로이 인식하게 하는 하나의 주요 계기가 되었을지 모른다. 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와주기는 하였으나 자신들과 경쟁 상대이던 발해의 공격을 받은 사건은 신라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졌을 터이기 때문이다. 그 위에 755년 일어난 安史의 난은 그런 인식 矯正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 같다. 난이 발발해 玄宗 황제가 巴蜀으로 피난하였다는 소식을 접하자 경덕왕은 그 이듬해 成都로까지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때 현종은 五言十韻의 시를 몸소 짓고 써서 경덕왕에게 답례하였다⁵⁵⁾. 아마도 당의 황제가 변경의 절도사에 불과한 安祿山에게 쫓겨 長安을 벗어나 성도까지 피난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은 신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을 것 같다. 그런 사정의 일단은 다음의 사료에 엿보인다.

B)十四年(중략)望德寺塔動唐令狐澄新羅國記曰 其國爲唐 立此寺 故以爲名 兩塔相對 高三十三層 忽震動開合 如欲傾倒者數日 其年祿山亂 疑其應也(『三國史記』 9 新羅本紀 景德王 14年條)

53) 『三國史記』 8 新羅本紀 聖德王 32年條.
 54) 同上 34年條.
 55) 『三國史記』 9 新羅本紀 景德王 15年條.

이 기사에 따르면 경덕왕 14년(755)에는 망덕사의 탑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흔들렸다고 한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망덕사는 통일전쟁기에 반당적 성격의 사천왕사와는 정반대로 당 황제의 축수를 위해 세운 사찰로서 완성 시점은 신문왕 5년(685)이었다⁵⁶⁾. 그런 망덕사의 탑이 흔들렸다는 것은 당과 관련하여 심상치 않은 어떤 인식상의 변화를 예고해 주는 조짐이었다. 그와 같은 정황의 대강을 위의 기사 속에 인용된 夾註를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다.

위의 협주에 인용된 ‘唐令狐澄新羅國記’는 흔히 지적되듯이 顧愔이 지은 『신라국기』의 잘못이므로 그렇게 고쳐져야 한다. 顧愔은 惠恭王 4년(768) 당의 책봉사로 파견된 歸崇敬을 따라 신라에 사절의 일원으로 왔던 인물로서 귀국한 뒤 『新羅國記』⁵⁷⁾란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거기에는 안록산의 난 초기가 아니라 완전히 마무리된 뒤 다시 금 상당한 시일이 흘렀음에도 당시 망덕사탑이 흔들렸다고 신라에서 傳聞한 내용을 실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록산의 난이 신라에 던진 충격파가 얼마만큼 강하였던가를 뚜렷이 증명하여 주는 대목이다. 당시 신라 민심이 어땠하였는지의 일단을 잘 반영하여 준다고 풀이된다.

안록산의 난은 755년부터 763년에 이르기까지 근 8년 동안 계속되었거니와 당의 정치사회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다. 이후 당은 지배체제 전반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비하지 안 될 지경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전반이 해이해짐으로써 각 지방에서 군림하던 藩鎮세력이 독자노선을 걸어갔다. 바로 이 무렵 황해 바다 건너 산둥 일대에는 고구려계의 李正己가 자리 잡아 9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수십년 동안 독자세력을 구축하여 위세를 떨쳤다. 난이 마무리된 즈음인 764년 신라 사신으

56) 『三國史記』 8 新羅本紀 神文王 5年條.

57) 위에 인용된 기사에는 令狐澄의 저작이라고 하였으나, 『신라국기』는 인멸되고 대신 그 부분이 그의 저작인 『大中遺事』에 인용된 사실(岡田英弘, 『新羅國記と大中遺事について』 『朝鮮學報』 2(1951))을 『삼국사기』 찬자가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로 일본에 파견된 大奈麻 金才伯이 北九州의 大宰府에 이르러서 소속 관료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자신들은 당의 내정이 심히 불안정하여 해적이 많이 준동하므로 甲兵을 내어 그를 경계하고 있다는⁵⁸⁾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이는 안록산의 난 여진이 신라에 얼마나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던가를 여실히 입증해 주는 사례이다.

당 황제 및 황실의 축수와 안녕을 빌기 위해 세운 망덕사의 탑이 흔들렸던 기억이 이후 신라인에게 것처럼 오래도록 각인되었다는 것 자체는 그것이 갖는 의미가 심상치 않은 수준이었음을 뜻한다. 이는 당에 의존하여 왔던 기존 신라의 주류적 시각 내에서 어떤 변화가 일고 있었음을 보이는 징조로 여겨진다. 그 동안 당 혹은 그 문화에 대한 일방적 경사와 신뢰는 밑으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오래도록 친당의존의 주류적 흐름 속에서 반당자주의 입장도 존재하였지만 이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를 못하였고 오로지 바닥에 깔려 있는 정도였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정이 현저히 달라졌다. 군자국을 바탕으로 한 반당자존의식이 기왕과는 다르게 겉으로 강하게 표출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비록 그것이 아직 주류적 상태로까지 나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라면 자신의 왕도를 東京이라 부르고자 한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일이었다. 언제부터 신라 왕도를 비공식적으로나마 동경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이 주요 계기가 되었으리라 추정하여도 그리 지나친 억측을 아날 듯 싶다.

안록산 난의 여파로 당이 안팎으로 큰 변동을 겪게 되자 그런 정황을 직접 목격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그 영향을 적지 않게 받고 있던 신라의 일각에서 한동안 잠복해 있던 대당 자립의식이 움츠려온 목을 서서히 들어올리기 시작한 것이다. 그 밑바탕에는 군자국, 왕성국이라

58) 『續日本記』 25 淳仁紀 天平寶字 秋七月 甲寅條.

고 자처할 만한 수준에 이른 문화적 자신감이 자리하고 있었음은 물론이다. 자신의 왕도를 동경이라 부른 밀바닥에는 곧 장안인 서경을 의식한 흐름이 깔려 있었다. 신라의 왕도는 당의 장안에 대응된다는 인식으로서, 달리 말하면 이는 곧 신라가 당과 대등하다는 자존의식의 표현인 셈이었다. 물론 당시 신라가 공식적으로 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런 의식이 표출된 것 자체에는 상당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당 문화에 지나치게 경도된 나머지 시종 일관 의존적 자세를 추구해온 현실의 지배세력에 대한 반감이 깔린 것이었다. 그런 분위기의 일단은 다음의 기사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五年 九月 以子玉爲楊根縣小守 執事史毛肖駁言 子玉不以文籍出身 不可委分憂之職 侍中議云 雖不以文籍出身 曾入大唐爲學生 不亦可用耶 王從之(『三國史記』10 新羅本紀 元聖王條)

이 기사에 따르면 당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자옥을 양근현소수로 임명하려 하자 집사부 소속의 최고 말단직 史였던 毛肖가 그는 文籍 출신이 아니어서 소수의 직을 맡길 수 없다고 논박하였다. 이에 대해 집사부 장관인 侍中을 중심으로 해서 의논한 결과 오히려 대당 유학생이어서 쓸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국왕으로부터 재가를 얻었다고 한다.

사실 이는 여러 각도에서 재음미해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지만, 모초가 가진 기본 입장은 단순히 개인만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시 대당 유학생 등용(혹은 重用)에 대해 팽배해진 반발의 분위기 전반을 대변하였을 듯한 인상이 짙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장 말단 관직인 史였던 모초가 감히 그렇게 주장하기는 힘들었을 터이다. 직전까지 대당 유학생의 관료 진출 상황이 뚜렷하지가 않아 구체적 실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당시 신라가 儒學을 지배이데올로기로 삼고 있었고, 당나라가 신라를 君子國이라 일컫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들은 관료 진출할

때 상당한 우대를 받았음은 분명한 사실이라 하겠다. 특히 성덕왕대에 빈번하게 추진된 대당 교섭의 창구는 주로 당의 언어를 잘 이해하고 그 문화에 익숙한 그들에게 맡겨졌을 공산이 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대당 유학 경험을 오히려 크게 선호하는 분위기가 주류였다고 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그런데 이제 元聖王代(785-799) 무렵에 이르러서는 사정이 판연히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대당 유학생을 우대하던 기존의 관료 선발 방법에 대해 반발하려는 짝이 움트고 있었다. 사실 대당 유학에 대한 반감은 바로 직전인 788년 국학 교육 강화의 한 방안으로서 시행된 讀書三品科와도 연관될 터이지만, 다른 한편 대당 인식상의 어떤 변화가 밑바탕에 작동하고 있었던 데서 기인한 현상으로도 풀이된다. 오래도록 진행된 대당 저자세 외교, 宿衛를 비롯한 당나라 유학생 우대 시책 등에 대한 불만이 밑으로부터 차츰 커져가고 있었으니 그런 상황을 모초가 자욱의 양근현소수 임명을 계기로 해서 노골적으로 표명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이 반드시 모초 개인의 일시적 견해일 뿐이라고 굳이 한정할 필요는 없겠다. 당시 신라사회에서 일고 있던 분위기 전반을 그가 대변해 주었을 따름이다. 특히 시중과 같은 고위직에서는 적절히 타협을 보려 한 반면 모초와 같은 하급관료가 그런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점은 특별히 주목되는 사실이다. 이는 기존 지배체제에 대한 반발이 밑으로부터 진행되고 있던 것으로서 자신의 왕도를 동경이라 부른 현상도 결코 그와 무관하지가 않을 듯 싶다. 지배층 주류의 일방적 대당의존 자세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점점 널리 번져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양상은 金憲昌의 난을 통해서도 뚜렷이 읽어낼 수가 있다.

熊川州都督으로 재직 중이던 김현창은 자신의 아버지 金周元이 혈연 상으로나 정치 서열상으로 당연히 즉위하여야 하였음에도 그러지 못하였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822년 자신의 任地를 거점으로 해서 반란의

기치를 내걸었다. 김헌창의 난은 한때 웅천주를 비롯한 武珍, 完山, 菁, 沙伐의 5州와 國原, 西原, 金官京의 3소경 등 거의 全國 반 이상의 호응을 받을 정도로 일시 氣勢를 올렸으나 크게 위기 위식을 느낀 왕경 지배세력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함으로써 급기야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⁵⁹⁾. 지방민들 대다수가 왕경 귀족 출신인 김헌창이 주도한 반란 사건에 가담하거나 동조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신라 몰락의 신호탄이 오른 것이나 다름 없었다⁶⁰⁾.

그런데 김헌창이 지극히 짧은 기간에 것처럼 폭넓게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방민의 反신라, 反중앙정부 감정이 널리 퍼져 있었던 탓이겠지만 다른 한편 그를 교묘하게 이용한 전략적 성공 덕분이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측면에서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사항은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長安이란 국호와 慶雲이란 연호를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는 그 이전 어떤 반란사건에서도 전혀 보이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깃든 현상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익히 아는 바처럼 신라는 法興王 23년(536) 나름의 천하의식을 가진 독립국임을 자처하는 표징으로서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백년 남짓 연호를 사용하다가 中古 말기에 이르러 儒學을 지배이데올로기로 내세워 시대를 새롭게 열어가려는 열망과 의욕을 지닌 김춘추와 김유신 등 신흥의 집권세력이 대당 외교관계를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에서 스스로 포기를 선언하였다. 이제 김헌창이 반란을 획책하면서 그를 부활시켰던 것이니 실로 170여년만의 일이었다. 바다 건너 日本은 신라보다는 뒤늦게 7세기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698년 건국한 북방의 인접국 渤海는 건국 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계속 사용하였다.

59) 『三國史記』 10 新羅本紀 憲德王 14年條.

60) 김헌창의 난 전반에 대해서는 朱甫墩,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2008) 참조.

그러나 신라는 오히려 그들과는 전혀 반대의 경우로서 100여년 이미 사용하던 연호조차 포기하는 길을 걸어갔다. 그런 선택이 결과적으로 당과의 외교를 유리하게 이끈 방편으로 작용한 셈이 되었고, 마침내는 삼국통합의 성공으로 이어졌다. 그와 같은 배경으로 말미암아 신라로서는 자칫 외교적 마찰을 빚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통일 이후에도 현실적으로 연호의 부활을 공식 선언하기가 곤란한 실정이었다. 그런 측면에서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연호 사용을 표방한 사실은 신라사회의 밑바탕에는 오래도록 그를 갈망하는 모종의 움직임이 강하게 흐르고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다. 김헌창은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와 같은 심상찮은 분위기 전반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국호와 연호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런 의식은 일견 동경이란 용어의 사용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풀이된다.

독자적 연호를 사용할 수 있는 대전제로서 작용한 것은 새로운 국호의 표방이다. 김헌창은 과감하게 신라에 대신하여 長安이란 국호를 내걸었다. 그것이 다시 독자적 연호 사용의 명분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새로운 국호 사용에는 중앙정부의 시책에 반발하는 원래의 신라 주민은 물론이고 복속된 과거의 백제, 고구려, 가야계 주민들까지 폭넓게 포섭해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지만 특히 내세워진 국호가 장안이었다는 사실은 각별히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이다.

장안은 다 아는 바와 같이 당시 세계제국으로 자처하던 당의 수도였다. 김헌창이 내세운 국호 장안이 당의 수도 명칭과 전혀 무관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당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내세웠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는 자신들이 당과 대등하다는 강한 자존심의 발로였다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 밑바탕에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신라가 군자국이라는 의식과 같은 강한 자존심이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장안이란 국호가 갑작스레 돌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여겨지는 않으며 이미 그럴 만한 배경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수나라에서 장안은 낙양이 동경으로 설정되면서 서경 혹은 서도라 불리었고 이후 그것이 계승되었다. 김헌창이 장안을 앞세운 데에는 신라의 왕도를 동경이라 설정하고 있던 의식에 대한 대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김헌창이 반란을 도모하면서 국호를 장안으로 내건 바닥에는 이중적 의미가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신이 건설을 회구하는 국가가 당과 대등하다는 의미에서이며, 그래서 독자적 연호를 표방한 것이기도 하였다. 다른 하나는 신라의 왕도인 동경에 대응되는 서경이라는 의미로서의 장안 건국이였다. 이는 김헌창 반란이 단순히 중앙에 대한 지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과 대등한, 그리고 신라 중앙정부와 대등한 독립세력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김헌창은 반신라, 반당의식을 지닌 세력의 포섭을 함께 겨냥해서 장안과 경운이라는 국호와 연호를 내세운 것이라 하겠다. 반란의 주동세력 혹은 그에 호응해서 가담한 세력들은 이제 기존 신라와는 다른 새로운 국가 건설을 꿈꾸고 있었으니 이미 자신의 왕도를 동경이라 불렀던 사람들도 바로 그들이었으리라 추정된다.

사실 김헌창이 장안이란 국호와 경운이란 연호를 내세운 사건은 갑작스레 돌출한 것이 아니라 밑바탕에서 꾸준히 성장일로를 걷던 자주 의식의 구체적 표현이었다. 이미 8세기 말에 쓰인 葛項寺石塔記에는 원성왕의 어머니 照文太后를 皇太后라고 일컫은 사실⁶¹⁾, 哀莊王 2년(801) 기존의 오묘제를 개정하여 惠恭王代(765-780)에 不遷之位로 입묘된 태종과 문무왕의 2묘를 別立하고 시조대왕을 포함하여 高祖 이하

61) 최치원이 896년 작성한 崇福寺碑에는 같은 인물에 대해 照文王后라고만 황태후라 하지 않고 있음은 주목된다. 8세기 말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父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直系尊屬을 내세워 5묘제를 새로 정함으로써⁶²⁾ 사실상 7묘제로 개정한 셈이 된 사실⁶³⁾ 등에서 그런 정황을 어렵게나마 읽어낼 수 있다. 이는 신라 지배층 일각에서 갖고 있던 일종의 황제의식을 보여 주는 것으로⁶⁴⁾ 풀이된다. 이들은 밑으로부터 변화를 추동하던 東京의식의 발현과 비슷한 면모였다고 하겠다. 김헌창이 난을 일으키면서 갑작스레 장안과 경운을 내세운 것은 그런 의식의 대변이었다.

김헌창의 난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런 근본 의식까지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다. 장보고의 청해진 설치에 뒤이어 景文王 12년(872) 황룡사 9층목탑을 중건하면서 ‘海東諸國 渾降汝國’하려는 의도가 들어 있는 찰주본기를 작성해 초석에 넣은 점, 불국토 건설의 중심 도량인 皇龍寺를 새로이 성전사원으로 설정한 점 등은 그러한 변화된 의식의 소산물이다. 후삼국기에서 통일 이후의 光宗대에 이르기까지 고려가 한시적이거나 皇帝國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한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사실 고려 성종대에 이르러 경주를 동경이라 부르게 된 것은 이 시점에서 새로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낸 신라계 출신자들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⁶⁵⁾ 자존의식을 내재한 과거 용어의 부활이었던 것이다. 그에 앞서 고구려의 수도 평양을 경영하면서 그것이 방위상 북쪽이었음에도 서경이라 이름 붙인 것은 당시까지 이어지던 동경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런 의미에서 동경은 이미 고려 성종 이전에도 현실적으로는 크게 인식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62) 『三國史記』新羅本紀 10 哀莊王 2年條.

63)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한국사연구』 98(1997), p.78.

64) 김창겸, 「신라 원성왕계 왕의 황제·황족적 지위와 골품 초월화」 『백산학보』 52(1997).

65) 김창현, 「고려시대 동경의 위상과 행정체계」 『신라문화』 32(2008), p.5.

5. 나가면서

‘東京’이라는 용어는 신라의 왕도였던 경주를 가리키는 별칭으로서 지금껏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용어가 처음 사용된 시점을 고려시대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였다. 사실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주를 동경으로 부르기 시작한 시점을 그렇게 설정하여도 잘못은 아니라 생각된다. 고려 성종대에 이르러 경주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하였음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비롯한 선입견으로 사료를 바라본 나머지 통일신라 시대에 ‘동경’이란 용어가 이미 출현되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버리고 말았다. 비록 신라국가의 공식적 입장은 아닐지라도 당시 자신들의 왕도를 동경이라 부른 몇몇 사례가 찾아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널리 알려진 향가인 處容歌나 813년 세워진 神行禪師碑와 같은 당대의 사료에는 왕도를 지칭하는 ‘동경’이란 지명의 존재가 명백히 확인된다. 그럼에도 이를 마냥 고려시대의 것으로 돌려버리거나 혹은 거기에 내재된 의미를 아예 거들떠보려고 하지를 않았음이 일반적 추세였다. 이로 말미암아 깊이 음미해 보아야 할 중요 사항임에도 그냥 지나쳐버린 대상이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된다. 이는 접근 방법상의 근본적 문제였음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와 연관이 있는 기존 역사 해석은 再吟味되어 마땅한 일이겠다.

동경은 원래 7세기 초 이후 隋와 唐의 왕도인 장안에 대응해 洛陽을 副都로 운영하기 시작한 데서 나온 용어였다. 당시 장안은 서경, 서도라고 불리었다. 신라의 일각에서 동경이란 지명을 사용한 의도도 그런 사정을 의식한 데서 비롯한 것이라 봄이 적절하겠다. 신라인이 자신의 왕도를 동경으로 부르기 시작한 시점은 문화 수준이 향상된 이후의 일

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이 신라를 君子國이라 인식한 시점은 각별히 주목해 볼 만한 대상이 된다. 이때는 신라 문화가 절정에 도달한 8세기 전반 성덕왕대로서 실상과 매우 어울리는 표현이다. 때마침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王城國이라고 자처한 사실도 그와 맥락을 같이한다.

바로 이 무렵 당에서 발발하여 동아시아 전체에 큰 충격파를 던진 安史의 난이 일어났다. 이 난은 신라에서 자존심을 걸고로 표출시킨 주요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라 여겨진다.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고조된 신라인의 자긍심과 자존심이 대당 외교에 가려져 있다가 두터운 舊殼을 부수고서 서서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표현의 하나가 바로 자신의 왕도를 '동경'으로 부르고자 한 인식이었다고 풀이된다.

신라인들이 사용한 동경은 당의 왕도 장안이 서경인 데에 대응한 표현이었다. 서쪽의 당에 대응하는 동쪽의 문화 중심이 신라라는 의식의 발로였다. 마치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를 西天竺이라 하고 신라를 東天竺이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로의 이치이다. 다만 당시의 집권세력이 대당 외교관계로 말미암아 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놓고 사용하기는 곤란한 일이었다. 하지만 밑으로부터 그런 의식은 점점 확대, 확산되는 과정을 밟고 있었다. 그를 증명해 주는 것이 김헌창의 난에서 사용한 장안이란 국호와 경운이란 연호의 사용이다.

신라도 650년까지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가 대당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포기하였다. 반면 인근의 발해나 일본은 뒤늦게 연호를 사용하고 있었다. 독립국 신라로서는 심히 자존심을 구기는 일이었지만 절실한 대당 외교로 말미암아 부득이한 조치였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그런 저자세에 대한 불만을 가진 집단이 존재하였고 그것이 마침내 김헌창의 난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었다. 독자적 연호 사용을 가능하게 한 명분은 장안이란 국호의 사용이었다. 이 장안은 서경의 다른 표현이던

도 동시에 신라 왕도를 동경으로 의식한 데서 나온 이중적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연호 사용에서는 당과 대등하다는 인식이, 그럼으로써 신라의 동경에 대해서는 반란군 자신들이 독립국으로서 한결 우위에 있다는 의식의 표출이었다. 김헌창이 그렇게 표방한 것은 물론 세력의 결집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런 인식이 널리 확산된 상태였음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보면 고려가 초기부터 서경을 사용한 것, 성종 대에 동경을 사용한 것 등은 이미 그 이전 신라 때부터 왕경을 동경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사실을 의식한 데서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시대 3경제를 새롭게 재음미해 보아야 할 필요성도 이런 데서 찾아진다.

■ 논문투고일자: 2015.07.17. 심사완료일자: 2015.07.28. 게재확정일자: 2015.08.20

<참고문헌>

- 곽승훈, 『新羅金石文研究』(韓國史學, 2006).
- 郭承勳, 「斷俗寺神行禪師碑」 『韓國金石文集成(12)』(韓國國學振興院·青溪文化財團, 2014)
- 權惠永, 『古代韓中外交史 - 遣唐使研究』(일조각, 1997).
- 金相鉉, 「三國遺事の 歴史方法論의 考察」 『東洋學』 23(1992)
- 金鎮熙, 「高句麗國號表記의 變遷에 관한 考察」(嶺南大教育大學院碩士論文, 1989).
- 김창겸, 「신라 원성왕계 왕의 황제·황족적 지위와 골품 초월화」 『백산학보』 52(1997).
- 김창현, 「고려시대 동경의 위상과 행정체계」 『신라문화』 32(2008).
- 나희라, 「신라의 종묘제 수용과 그 내용」 『한국사연구』 98(1997).
- 盧明鎬, 「高麗時代의 多元的 天下觀과 海東天子」 『韓國史研究』 105(1999).
- 辛鍾遠, 『新羅初期佛教史研究』(民族社, 1992).
- 李基文, 『新訂版 國語史概說』(태학사, 1998).
- 李丙燾, 『高麗時代의 研究』(을유문화사, 1948).
- 李泳鎬, 「신라 중대 왕실사원의 관사적 기능」 『한국사연구』 43(1983).
- 蔣尙勳, 「高麗 太祖의 西京政策」 『高麗 太祖의 國家經營』(서울대출판부, 1996).
- 章輝玉, 『海東高僧傳』(民族社, 1991).
- 鄭求福, 「高句麗의 '高麗' 國號에 대한 一考察」 『湖西史學』 19·20(1992).
- 曹凡煥, 「東京 興輪寺 金堂 十聖에 대한 再論」 『삼국의 초전 불교와 그 특징』(신라문화제학술회의논문집35)(2014).

- 朱甫噉, 「《文館詞林》 소재 外交文書」 『慶北史學』 15(1992); 『금석문과 신라사』(지식산업사, 2002).
- 朱甫噉,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51(2008).
- 朱甫噉, 「《日本書紀》의 編纂 背景과 任那日本府說의 成立」 『한국고대사연구』 15(1999).
- 朱甫噉, 「통일신라의 (陵)墓碑에 대한 몇 가지 논의」 『木簡과 文字』 9, (2012).
- 蔡尙植, 「신라통일기의 성전사원의 구조와 기능」 『부산사학』 8, (1984).
- 최홍조, 「신라 神行禪師碑의 건립과 그 정치적 배경」 『木簡과 文字』 11(2013).
- 韓基汶, 「新羅 下代 興輪寺와 金堂 十聖의 性格」 『新羅文化』 20(2002).
- 하일식, 「당 중심의 세계질서와 신라인의 자기인식」 『역사와 현실』 37(2000).
- 河炫綱, 「高麗 西京考」 『歷史學報』 35・36; 『韓國中世史研究』(1988).
- 末松保和, 「三國遺事の經籍關係記事」 『靑丘史草』 2(1966). 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その名につきて」 『東洋學報』 15-2(1925).
- 武田幸男, 「創寺緣起からみた新羅人の國際觀」 『中村治兵衛古稀記念東洋史論叢』(1986).
- 岡田英弘, 「新羅國記と大中遺事について」 『朝鮮學報』 2(1951).
- 李殿福, 「高句麗가高麗と改名したのは何時か?」 『高句麗・渤海の考古と歷史』,(學生社, 1991).

‘Donggyeong’ in Silla and Its Meaning

Ju, Bo-don

[Abstract]

The place name “Donggyeong” once referred to Gyeongju in the Korean history and such perception has lasted. In general, the time to call Gyeongju “Donggyeong” was regarded as the period under the reign of King Seongjong in early Goryeo. However, such perception has much room to be reconsidered in many aspects, because several examples have been confirmed that the royal capital was called “Donggyeong” from the Silla Dynasty, which was a way earlier period. For example, the place name “Donggyeong” is found in Hyangga (old Korean folk songs) named *Cheoyongga* (The song of Cheoyong) composed in the late 9th century. Some say it was written as a postscript in the Goryeo Dynasty. However, this is a very risky idea because there will be possibilities to consider every Hyangga in that way. In particular, one of the most decisive resources that Gyeongju has been called “Donggyeong” since the Silla Dynasty was the case of *Sinhaengseonsabi* (Stele for Master Sinhaeng) built in Dansoksa Temple in Cheongsan Mountain in Gyeongnam Province in the early 9th century, where the capital of Silla was recorded to be called “Donggyeong”.

Like such, if the period to start calling the capital of Silla “Donggyeong” was the Silla Dynasty rather than the early Goryeo Dynasty, there are rooms for new interpretation in many ways. They include the issues such as when and under what backgrounds the city was called “Donggyeong” and what kind of meaning and significance it had. The people in Silla had started call “Geumseong”, the royal capital, “Donggyeong” since the mid-8th century at the

latest, which is regarded to be based on the significantly enhanced cultural level of the country at that time and subsequent sense of self-respect. With self-respect to be equivalent to the Tang Dynasty, in response to that Jangan, the capital of Tang, was called Seogyeong, people started to adopt the awareness to call Geumseong “Donggyeong”, which was expanded. Of course, it was not an official position of the country. Rather, it was a response to the lopsided pro-Tang culture by some people. This was clearly reflected in that Kim Heon-chang waged an uprising in 822 and set the name of the country as “Jangan” and even used the era name of “Gyeongun”. If this assumption is considered persuasive, there should be a lot to be reexamined in a comprehensive manner about not only the internal issues of Silla but also the diplomatic relationship between Silla and Ta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of Department of History / bdju@knu.ac.kr)

Key Words : Donggyeong, Geumseong, Jangan, Seogyeong, Gyeongun,
Cheoyongga, Dansoksa Temple, Sinhaengseonsabi

